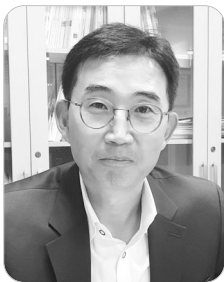


가금질병연구회 연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느꼈던 단상

‘가금질병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는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가금진료 수의사나 조류질병과와 한 번이라도 같이 일을 해봤던 분들은 이런 연구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금질병연구회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30년이 훌쩍 넘은 1985년에 당시 계역과 연구직 공무원들과 양계농장, 현장 양계전문 수의사, 동물약품 회사직원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연구회이다. 연구회는 가금질병의 연구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는 검역본부 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관·학 연구모임으로 총 회원 수는 약 170명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미나의 내용과 개최하면서 느꼈던 사항 등을 간단히 기술코자 한다.



권 용 국

본지편집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

1. '18년도 가금질병연구회 세미나 주제 및 내용

가금질병연구회는 국내에 가금질병 연구 및 예방법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연례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지난 11월 2일 대전 유성의 라온 컨벤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2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내 생산성 저하 질병(전염성기관지염, 가금콜레라, 닭진드기, 전염성선위염)의 발생특성과 효율적 예방관리라는 주제로 네 명의 연자의 발표가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국경초월(Transboundary) 질병(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국내외 발생 동향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다루어졌다(표1 및 사진 1 참조).



▲ 2018년도 가금질병연구회 세미나 현장 사진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갔던 주제는 전염성기관지염,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였다. 조류질병과 이자연 연구관이 발표한 전염성기관지염은 올해 현

장에서 가장 많이 진단된 질병으로, 분리된 바이러스들은 신장형(QX형)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호흡기형도 간헐적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효율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신장형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광범위한 면역 효과를 유도하는 호흡기형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연자는 요청하였다. 제일제당 신인호 부장은 국내는 8년 이상 뉴캐슬병(ND)이 비발생이지만, 동남아에서는 가장 심각

표 1. 2018년 가금질병연구회 연례세미나 주제 및 연자

구 분	발표 제목	발표자(소속)
(1부) 국내 생산성 저하 질병의 발생 및 대응	최근 전염성기관지염 발생상황 및 특성분석	이자연(조류질병과)
	국내 가금콜레라 발생 동향	김진현(조류질병과)
	닭진드기 방제법 현장 적용 현황	유종철(네오바이오)
	육용종계 웅주 백혈병바이러스 등에 의한 선위염	배유찬(조류질병과)
(2부) 국경초월 질병의 발생 동향 분석	동남아 뉴캐슬병 발생 사례	신인호(제일제당)
	아시아 가금질병 발생 동향	홍영호(Aviagen)
	MS 백신 사용 후 모니터링 검사	김명섭(베링거)
	최근 국내 발생 HPAI 바이러스 특성분석	이윤정(시연구진단과)

하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PAI와 관련해서는, 예년보다 8만마리 더 많은 철새가 우리나라로 찾아와 월동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차단방역과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연자는 요청하였다.

2. 마이코플라즈마 고시에 대한 높은 관심

마이코플라즈마(MG)에 대한 참석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6년도에 개정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된 종계는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종계로서의 사용이 금지되며 종란을 부화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하지만 고시개정 당시 마이코플라즈마의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감염률의 추이를 보면서 유예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현장에 참석한 분들은 현재 상황이 과거 3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16년 개정된 고시가 ‘19년 5월 26일 이후에 적용되면 종계사육수수와 종란 공급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이었다. 따라서 조류 질병과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가 관리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다.

3. 가금질병연구회 세미나 개선사항

최근 수년간 가금질병연구회 연례 세미나를 가금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몇 년간 이렇게 공동개최에 따른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인지되었다. 그건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질병 예방 등 방역에 동행해야 할 중요한 분들이 소외된다는 사실이다. 닭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가금질병연구회의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하는 환경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과거 HPAI 발생으로 농가들의 각종 모임을 자제토록 한 것도 일정 부분 질병세미나 참석률 저조로 이어졌지만, 수의사들의 모임으로 국한되는 듯한 분위기가 참석을 가장 어렵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질병정보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세미나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현장으로 파급되고 적용되어 농가들이 질병 피해가 최소화로 이어지는 것이 세미나의 주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미나 참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제의 선정과 모임의 성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양계**